

Korea / Global Market
24 September 2012

Global Focus

독일-프랑스 금융동맹 관련 이견 표출

1. 독일-프랑스 금융동맹 관련 이견 표출 (Bloomberg 2012. 9. 21)

- 독일-프랑스 정상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화해 기념 행사에서 금융동맹 관련 현안 조율
- 금융감독권에 대해서 프랑스는 빨리 시행할수록 좋다는 입장으로 내년부터 바로 ECB에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자는 입장
- 반면, 독일은 ECB에게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스페인 구제금융 관련해서도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가 전면적 구제금융을 속히 결정하자는 입장이나, 독일은 스페인 은행 부문 지원 외 추가 지원은 필요 없다는 입장

2. ESM, 레버리지를 제외한 출범 가능성 제기 (WSJ 2012. 9. 21)

- 언론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EFSF의 차입 투자 기구를 ESM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 하지만 핀란드의 반대로 이 안건이 무산되었다고 보도, 핀란드는 ESM의 투자 손실 시 ESM의 선순위 채권자 지위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EU 내부인사에 따르면 핀란드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있으나, ESM이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차입 투자기구 요건이 ESM 지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3. ECB 집행위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 (Bloomberg 2012. 9. 21)

- ECB 피르 집행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있다고 밝힘
- 최근의 경제 지표들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4. S&P, 하반기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Bloomberg 2012. 9. 21)

- S&P는 하반기 미국 성장률이 2.2%에 그치고 내년에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은 20-25%로 추정했으나, 빠르게 경기가 반등할 확률 역시 15%로 낮게 평가
- 기업의 고용 창출 약화로 가계 지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으나, 주택시장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

이재훈, Analyst
3774 1375
jaehun.lee@miraesasset.com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미래에셋증권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훈